

# 지역문화 정책 발굴 · 문화 복지 집중

전북문화관광재단, 기자간담회 갖고 상반기 성과 ·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 이사 이기전)은 지난 13일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의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단 이기전 대표이사과 각 본부장, 팀장들이 참석했다.



이기전 대표이사

이에 따르면 재단은 상반기 3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역할 증대와 숙원사업이던 사무처 이전으로 양질의 근무환경 개선을 이뤘다.

또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무대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힘썼다.

경영기획본부는 기업·재단·예술인이 함께 하는 메세나 사업을 추진한다. 2건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업과 지역 예술인 파트너십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과, 문화예술계의 후원문화 확대를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또한 정책기반강화사업은 14개 시·군 간 균형 있는 지역문화 정책 발굴을 진행한다. 도민과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공론장(public sphere)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문화예술진흥본부는 문화 민주화와 문화 민주의 실천을 골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문화 복지를 달성하고, 지역성 강화를 통한 도민 밀착형 사업추진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은 도내 유희공간을 활용해 뉴미디어아트 중심 창작공간을 정음시 능협 양곡창고에 조성, 운영 예정이다. 2024년 이후에는 시군에 직접 운영해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구성한다.

관광진흥본부는 관광을 통해 지역을 바로 알려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역설했다.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광주, 전남 등 국내·외 공동마케팅과



2020 문화정책포럼 달문과 달화 모습.



2020 학교문화예술교육 콘서트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모습.

하나의 호남권 관광선도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공연기획추진단은 새로운 관광브랜드 상설공연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을 찾아가는, 판소리 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은 전북 지역 특화 공연관광 콘텐츠로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전통

판소리와 고전무용, 현대무용 그리고 비보이 등과의 융합으로 탄생한 댄스컬로 참신한 지역특화 콘텐츠를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팀(063-230-741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천주교, 백신 나눔 기금 25억원 교황청에 전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각 교구가 모금한 백신 나눔 기금 25억여 원을 교황청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14개 교구에서 주교회의로 보내온 백신 나눔 기금(25억여 원, 5일 기준)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교구와 대전교구는 교황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주교회의로 보내는 기금도 보낼 계획이다.

주교회의 상임위는 이날 제52차 세계성체대회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대구대교구 장신호 주교, 신우식(주교회의의 사무국장) 신부 등이 참가한다고 전했다.

9월 5~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이 대회 중 염 추기경은 9월 10일 오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강의를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대회에는 한국 순례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6월 22~26일 열린 제10차 세계가정대회에 대해서는 개최 방식을 각 교구에 안내하기로 했다. 로마 현지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방송 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뉴스

##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향상음악회

오늘 무주청소년수련관서 진행

15일 오후 5시 30분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향상음악회가 열린다.

향상음악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단원들의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체합주 곡인 You Raise Me Up과 장난감 교향곡 뿐 아니라 각 파트별 연주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안성만나지역아동센터의 찬조 출연도 계획되어 있다.

무주군산림영화제 공연 이후 올해로 두

번째 공연을 준비중인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부모님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릴 생각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 중에 있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며 무주군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의계층을 포함한 일반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밝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로 2년째 운영중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13일과 14일 '2021년도 2차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진행하며 이사장, 기획조정실장, 본부장도 동참해 재단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 했다.

## 태권도진흥재단, 신규직원 직무교육

담당 업무 조기 적응 등 돕기 위해 진행... 재단 비전 공유 · 나아갈 방향 논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은환)은 13일과 14일 '2021년도 2차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진행하며 이사장, 기획조정실장, 본부장도 동참해 재단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신규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추고 담당 업무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도 2차 신규직원 교육에는 6명의 직원과 함께 오은환 이사장, 기획조정실장, 영입본부와 진흥본부 본부장도 동참해 재단의 미션과 비전, 주요사업, 혁신 과제, 반부패 청렴, 공문서 작성, 회계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직무교육에 참석중인 김정은 주임은 "재단에서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철저히 준비해 주어 고맙고 이사장님이 함께 할 줄은 불렀다"며

"우리 재단이 신규직원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음을 느꼈고, 이사장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재단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 참 좋았다"며 교육에 참석할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은환 이사장은 "우리 재단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 중에 신규직원들의 색다른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소중한 자산이다"며 "교육에 동참하는 것은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신규직원을 비롯한 직원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신규직원 직무교육 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거리 두기,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